

동해안서 '금강산 피살' 모의 실험

정부 합동조사단, 이동거리 측정·탄도 실험...결과 곧 발표

금강산 관광과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모의실험이 동해안에서 진행됐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27일부터 이틀간 동해안에서 국과수와 경찰청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 관련 모의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는 고(故) 박왕자씨가 걷고 있을 때, 뛰고 있을 때 등 여러 상

황을 가정한 이동거리 측정 실험, 탄도 및 사격 실험 등이 진행됐고 결과는 국과수의 분석·평가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충격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탄도 실험 등이 진행된 것이며 국과수의 분석·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날 금강산 해수

욕장 운영업체 등 현대아산 협력업체 관계자와 사고 당일 박씨가 포함된 관광조의 조장 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금강산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대북 추가 제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印·美 반발...DDA 협상 막판 진통

잠정 타협안은 나와...“협상 결렬 가능성도”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의 자유화세부원칙들에 관한 잠정 타협안이 마련됐으나, 일부 남은 쟁점들을 놓고 주요국들이 재격돌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27일(현지 시간) 저녁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업 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을 비롯한 남은 쟁점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인도가 개도국 긴급수입관세와 관련해 잠정 타협안에 제시된 것보다 발동이 더 쉽도록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중국마저 당초 입장을 반복해

NAMA 분야의 분야별 자유화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세계 최대의 면화 수입국인 중국이 면화를 개도국 특별품목 중 관세감축 면제품목에 집어넣을 경우 미국만 면화보조금을 깎을 수는 없다면서 중국의 면화 수입관세와 자국의 면화 보조금 삭감을 연계시키고 나섰다.

앞서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일정과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15개 미세 쟁점과, 최빈개도국 및 최빈가입국 대우를 포함한 NAMA 분야의 9개 미세 쟁점들을 놓고 그룹별 협상을 가졌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바나나 분쟁은 어느 정도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카메룬 등 일부 국가는 "현 상태로는 바나나 관련 협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라미 총장은 28일 오전 153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열어 주말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게 되며, 미국과 인도, 중국을 비롯한 G7(7대 무역국)들은 별도 회동을 갖고 다시 이견 좁히기에 나선다.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무엇보다 G7회의에서 개도국 긴급수입관세 발동요건과 분야별 자유화협상 참여,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이들 쟁점들에 대해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전당 광주 건립은李大통령 공약”

한나라 이정현 의원 이행 촉구

곡성 출신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비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등 광주·전남 공약 이행을 잇따라 촉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에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수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27일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건립을 기원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일류국가 희망공약'이라는 대선공약집에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전당을 광주에 유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1월 대통령인수위에서도 광주 유치는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확인하고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07년 8월 민주화운동사업회가 서울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

전당 건립을 검토했다가 학부모 대표들과 서울교원단체연합회의 반대 성명으로 취소한 바 있다"면서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소망스럽지 못한 일이라는 여론이 존중된다면 소망하는 지역에 건립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광주 건립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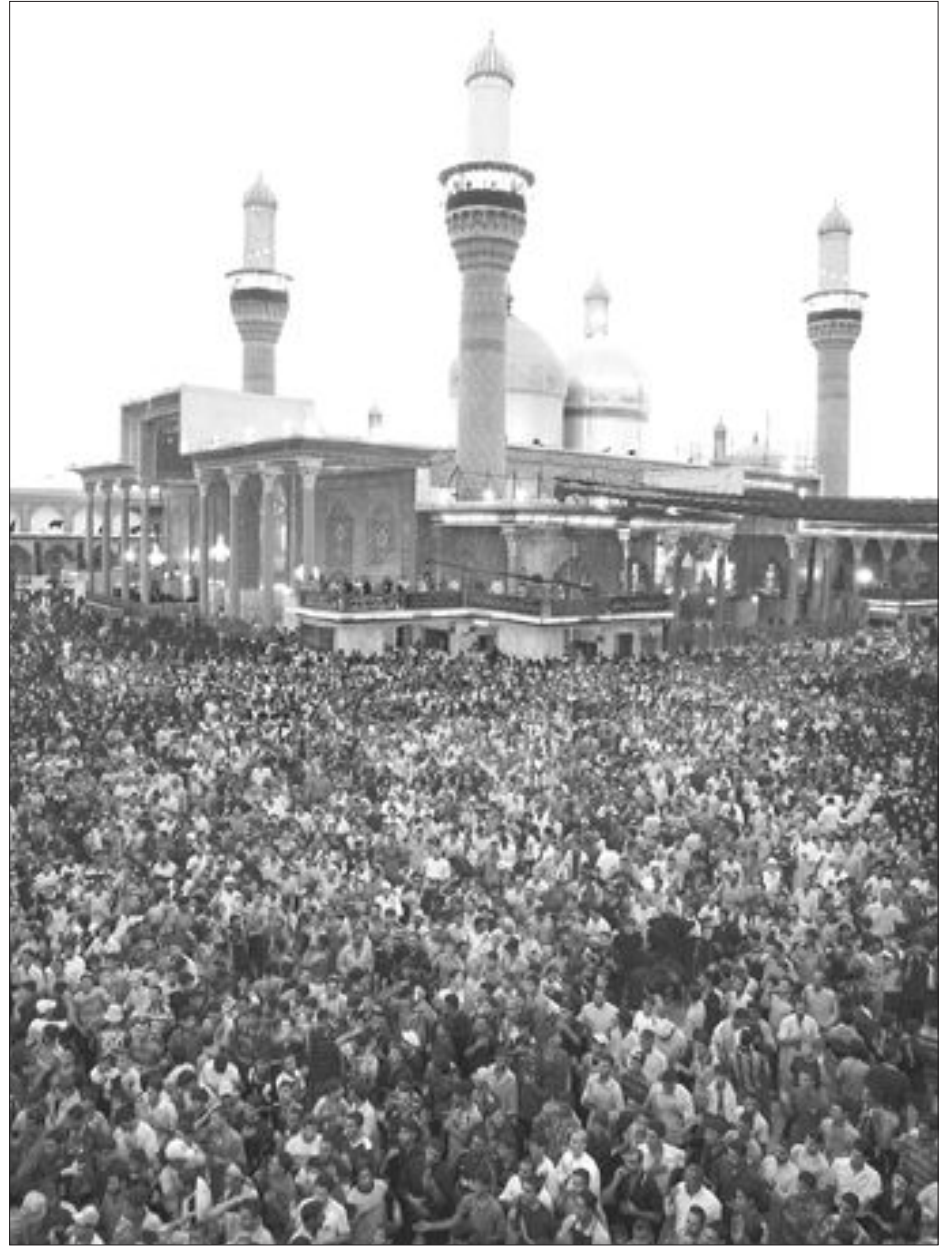
그는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시민 전체와 지자체가 간절히 원하고 유치위원회까지 구성된 광주에 순조롭게 건립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8일에도 '국책사업 유치 비결은 지피지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전남의료복합단지 유치하러면 "시·도 지사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학계와 종사기관, 출향인사까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사업비만 5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입지 선정과 관련 신경쓰는 부분은 시설의 분산이 아니고 집적이며 임상실험 인프라와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실험실, 의대·병원과 연계, 관련 벤처기업 등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보를 입수하고 진행과정을 주시하며 관련 인사들의 설득에 보다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호남 정책의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의 광주 설립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 차질 없는 이행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 등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오바마 해외 순방후 매케인과 격차 벌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경쟁자인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주)과의 지지도 격차를 다시 벌리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결과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갤럽이 지난 23~25일 미 전역에서 유권자 2천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오차범위 ±2%) 오바마가 48%, 매케인이 41%의 지지를 각각 받아 오바마가 7% 포인트 앞섰다고 갤럽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바마가 순방에 나서기 전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바마가 45%를 얻었고, 매케인이 43%를 얻어 2% 포인트차의 치열한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기간인 지난 25일 오바마는 독일 베를린의 승전탑 앞에서 20만명 이상의 많은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중연설을 실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와 매케인간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유럽·중동 순방효과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라스베이거스는 지난 20일엔 오바마와 매케인이 모두 46%의 지지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중폭발탄 기능 차기 복합형 소총 순 국내기술 개발 내년 실전 배치



적진 상공에서 터지는 공중폭발탄을 발사할 수 있는 '차기 복합형 소총(차기소총·사진)'이 내년부터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06년 10월 제작된 차기소총 시제품을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효사거리와 폭발탄 성능 등 47개 항목에 걸쳐 운용시험평가한 결과,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차기소총은 개발비 185억원이 투입돼 2000년

4월 개발에 착수했다. 차기소총은 초도양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차기소총은 기존 소총에 사용되는 구경 5.56mm 탄환은 물론 구경 20mm 공중폭발탄도 하나의 방아쇠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당길 수 있도록 이중 총열 구조로 고안돼 복합형 소총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열상검출기에 의한 표적탐지 및 레이저 거리측정, 탄도계산을 통해 조준점이 자동으로 유도돼 주·야간 정밀 사격이 가능하다. 이어 방아쇠를 당기면 공중폭발탄에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되면서 발사되어 적진 3~4m 상공에서 자동으로 폭발한다. 야전에서 주·야간 전투 때에는 적진 상공에서 터지지만 시가지 전에서는 공중폭발탄이 건물 안으로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고안했다. 차기소총의 중량은 6.1kg, 길이 860mm다. 유효사거리는 460~500m이며 대당 가격은 1천600만원이다. /연합뉴스

폭탄테러속 추모 인과

수 천명의 이슬람교도들이 28일 시아파 선지자 이맘 무사 알-카딤의 추모행사(29일)에 참여하기 위해 바그다드의 알-카딤 사원 앞에 운집해 있다. 이날 바그다드에서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의 자살 폭탄테러가 일어나고 한 차례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지면서 최소 24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다. /연합뉴스

김영민(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스피치 리더십 과정은... (내용 생략)

문의: 010-9224-1271

김영민(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경영 지도자 과정은... (내용 생략)

문의: 010-9224-1271

한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연수일정: 2008. 8. 15(목) ~ 18(일)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대우빌딩 10층

문의: 02-550-0100

한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연수일정: 2008. 8. 15(목) ~ 18(일)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대우빌딩 10층

문의: 02-550-0100